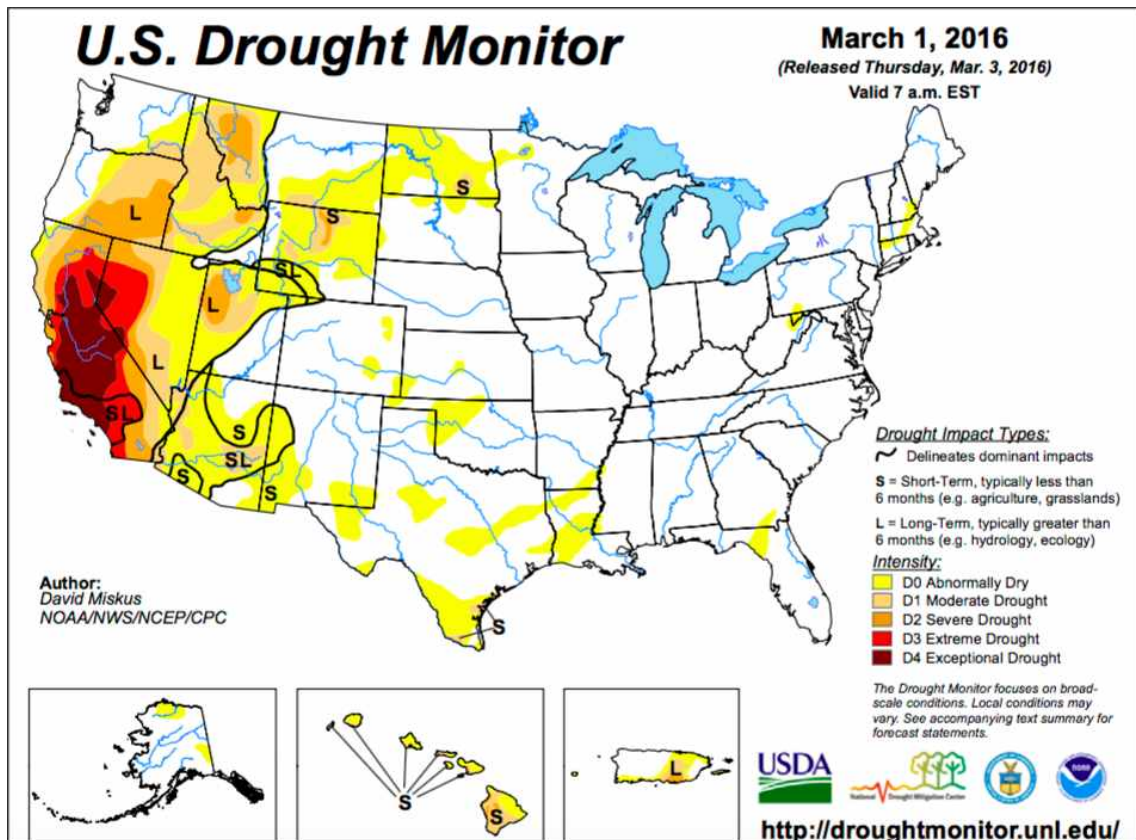




3월 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10)

□ 미국 기후 현황(2/28~3/5)

지난 2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던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에서는 지난 4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비는 저지대에 집중되어 저수량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씨에라 네바다 산맥 일대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평년 수준의 적설량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북서부 일대에도 평년에 비해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반면, 대평원 일대와 남서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오클라호마는 맑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몇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중부와 서부 전역은 대체적으로 이른 봄 날씨를 보이면서 농작물은 좋은 생육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산간 지방을 덮고 있어야 할 눈이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남부와 대평원 북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최소 10°F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동부에서는 서부와 달리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고, 미네소타와 메인 주 북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농업 현황 요약(2/29~3/6)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미시시피강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평년보다 3°F 이상 기온이 높았다. 특히 태평양 북부와 로키산맥 일대에서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최소 12°F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다. 이같은 고온 현상과 대조적으로 미네소타, 메인, 미시간 일대는 평년보다 기온이 6°F 이상 낮았고,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전국적으로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린 가운데,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3인치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2/28~3/5)

■ 유럽: 남동부 일대에서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다. 영국, 독일, 폴란드 등 북부 지역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토양 수분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50~160mm 내외의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가뭄으로 인한 걱정을 씻어주었고,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25~80mm 내외의 비가 내려 토양 수분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1~2°C 정도 낮아 겨울 작물의 성장 속도는 평년에 비해 느린 편이다. 스페인 북부에서는 영하 4°C 전후의 추운 날씨가 이어져 밀의 동해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최소 7°C 이상 높은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덕분에 작물의 생육은 매우 빠른 편이다.

■ 구소련(서부): 이례적인 고온현상으로 밀은 휴면기를 끝내고 생장을 재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경지를 덮고 있는 눈이 녹아내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벨라루스, 러시아 북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강수량으로 환산한 적설량)의 눈이 내렸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남부에서는 1~13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흑해 일대에서는 낮 기온이 영상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3~10°C),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5°C까지 오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러시아 남부 일부 지역, 및 Krasnodar Krai 에서는 겨울밀이 휴면을 끝내고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다. Volga와 북부 일부 지역에서만 농지에 눈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봄 날씨를 보이고는 있지만, 한두 차례 추위가 찾아와 동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등 여름철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덥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고, 낮 최고기온도 30°C 이상 오르는 더운 날씨로 인해 일부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면화 등을 재배하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평년보다 1~2°C 정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도 30°C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여름작물 중 일부는 더운 날씨와 좋은 생육 상황으로 인해 조기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의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Ferosa 동부 일대에는 50mm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도 했다. Buenos Aires, La Pampa 등에서는 10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은 생산량이 많은 편이 아니기는 하지만, 최근 이들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수확 전망도 예전이 비해 낮아졌다. 중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1°C 정도 높았고, 북부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조금 낮았다. Buenos Aires 남부와 Santiago del Estero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중반에서 30°C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La Pampa와 Buenos Aires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며칠 간 기온이 10°C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작물의 생육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35%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p 앞선 수치이다.

■ 브라질: 남부와 중부의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Gerais 남서부와 Sao Paulo 북부, Minas Gerais 등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었고, Mato Grosso, Rio grande do Sul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브라질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두 파종에 유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to Grosso 남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이상 오르내리고 있고, 그 밖의 시간에도 20~30°C Minas Gerais 사이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와 중부에서는 북부 지역과 대조적으로 대체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Bahia 서부, Tocantins, Maranhao, Piaui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이상 오르내리면서 작물이 빠른 속도로 여물고 있다.